

○ 다음달 15일부터 10월까지 총 8강, 전북대학교 이야기 연구소에서 호남학 강좌 ‘전대지23’ 진행...현장 강의와 줌으로 참여 가능해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전북대학교 이야기 연구소가 다음달 15일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2강씩 총 8강 호남학 강의, ‘전대지23’ 진행한다.

‘전대지23’란, 전문성·대중성·지역성의 줄임말로,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고전문학 교수진의 전문성(專門性)과 20대 지역 인재들의 영상 콘텐츠(大衆性) 제작을 통해서, 전북인으로 산다는 것(地域性)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고전문학과 전북의 7개 지역(익산·완주·무주·고창·임실·정읍·진안)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강좌와 20대 지역인재들과의 현장토크로 2시간 진행된다.

‘전대지23’은 전북에 관심있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하다. 수강기간은 2023년 7월에서 10월까지, 매달 2강씩 총 8강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01호이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줌(zoom)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7월 15일에 시작되는 첫 번째 강연은 ‘역사와 설화 사이, 백제 무왕’이라는 제목으로 오정미 연구교수가 발표한다. 이 강연에서는 해상강국의 웅대한 포부를 품은 백제 시대 무왕과 민간전승 서동설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은 7월 22일(토)에, ‘콩쥐나, 팥쥐나’라는 제목으로 이정훈 연구교수가 발표한다. 완주 김계 사이의 원조논쟁이 있었던 콩쥐팥쥐 이야기를 고전서사적 측면에서 흥미롭게 다룰 예정이다.

8월 12일(토)에 시작되는 세 번째 강연은, ‘무주와 최북’이라는 제목으로 정순희교수가 발표한다. 이 강연에서는 조선의 고희라고 널리 알려진 최북과 무주지역의 인연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네 번째 강연은 8월 26일(토)에 열리며, ‘식인거인과 수박’이라는 제목으로 김도

형교수가 고창의 죽도전 속에 등장하는 초대형 수박 이야기를 중심으로 고창의 지역색에 대해서 강연을 할 것이다.

9월 9일(토)에는 다섯 번째 강연이 열리며, ‘주인을 살린 오수의 개’라는 제목으로 이종주 명예교수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오수의 개 이야기와 현대 사회의 동물의 인권 등에 관한 시대적 변화를 연결하여 고찰할 것이다.

여섯 번째 강연은 9월 23일(토)에 열리며, ‘무성서원과 송세림의 어면순’이라는 제목으로 김도형교수가 조선시대 필자가 밝혀진 육담집인 어면순을 대상으로 작가의식과 지역적 가치를 중심으로 강연할 것이다.

10월 달에는 일곱 번째 강연이 10월 7일(토)에 열리며, 김삼의당의 삶과 문학-문학을 통해 삶의 진상을 읽다’라는 제목으로 이월영 명예교수가 전북의 대표여류시인인 삼의당 김씨의 삶과 문학의 현재적 의미를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 강연은 10월 21일(토)에 열리며, ‘땅과 이야기, 전북의 메르헨가도’라는 제목으로, 이정훈 연구교수가 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편의 설화를 문화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전대지23’은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전북대 이야기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지역이해 강좌프로그램이다. 매달 진행되는 총 8회의 강연을 통해, 전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시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이 강의를 시작으로, 전북 14개 시군에 투영된 고전서사의 미학이 지역민에게 더욱 더 향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세한 것은 전북대이야기 연구소(063 219 5684)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nstagram@jbnu_storylab)